

중국석유산업 재편과 석유공급

본 란은 일본석유전문지 석유문화 5월호의 내용을 발췌·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석유수요는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해, 현재 420만b/d 정도이다. 아시아 주변국의 경제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성장 8%의 목표를 달성, 중국의 석유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합으로 경쟁력 강화

중국 석유산업은 1998년, 中國石油天然氣集團公司(CNPC)와 中國石油化工集團公司(SINOPEC)을 중심으로 크게 재편되었다(그림 1). 이들 2개 그룹은 중국을 북부와 남부로 분할해 석유의 개발·생산, 정제, 유통·판매, 무역을 수직통합하는 일관조업회사로 바뀌었다. 유전과 정유공장 부문은 확실히 마무리 되었으나, 주유소등 판매부문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조직개혁의 목적은 ①정부가능의 집약·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정책결정 ②효율회추진을 통한 석유산업 활성화, ③국제수준의 종합석유기업 육성 등이다. 그러나, 지방 판매회사와 정유공장, 中國海洋石油總公司(CNOOC), 中國化工輸出入總公司(SINOCHEM)등 파관요인은 남아있어 개혁이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지 미

지수이다.

중국은 '98년 6월부터 석유의 국내판매가격에 지표가격제도를 도입해 가격의 국제화를 도모했다(그림 2). 싱가포르시장 가격에 제경비를 더해 산출한 지표가격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참고로 각성, 직할시가 공사가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코스트가 높은 중국의 석유생산이 국제가격 하락을 얼마만큼 따라갈수 있는가가 국제화의 열쇠이다.

'98년 후반은 석유제품 금수조치와 밀수 단속으로 석유재고가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시장은 어느정도 수습되어 CNPC, SINOCHEM 양사는 적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괴리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그림 2).

수요급증속에서도 낮은 가동률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아시아주변국과는 대조적으로 '98년 중국은 경제성장 8%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고 석유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SINOPEC 연안지역은 '90년대의 증가율이 평균 7.3%로 높고

SINOPEC 내륙지역도 연평균 4.4%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요급증에 비해 해상, 서부유전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던 원유생산은 동부유전의 정체로 다시 둔화되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 기존 정유공장을 중심으로 확대된 중국의 정제능력은 460만b/d를 넘었지만, 주요 정유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70%로 낮다. 특히 양쯔강 연안의 SINOPEC 내륙지역은 수송Neck로 국산·수입원유 모두 운송이 어려워 60%로 현저히 낮은 가동률에 고민하고 있다. 지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정유공장의 정리·통합도 현안중 하나이다.

석유수요가 급증하는 SINOPEC 관할지역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갭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CNPC 관할지역에서 원유와 석유제품이 대량으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연안지역에서는 원유와 경유, 중유 중심의 제품 수입도 늘어났다(그림 3). 현재는 CNPC가 남부로 원유와 제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SINOPEC은 四川省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98년은 석유제품 수입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97년 수입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98년 원유수입의 특징은 세계각지에서 국산원유와 유사한 원유를 들여온다는 점인데, 경질저유황원유를 중심으로 중동원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다.

연안지역에서 중동원유처리

향후 중국의 석유수요 급증에 대해 석유공급 차원에서 3개 Option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①석유제품 수입확대, ②국산원유와 유사한 원유나 중동 경질저유황원유 수입 확대, ③고유황원유를 포함한 중동원유의 본격 수입이다. 위 ②의 경우는 수입에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기타 아시아국가와의 경쟁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 ③의 경우는 필요 설비에 대한 투자부담이 크다.

CNPC는 관할 지역의 수요확대물량을 국산원유로 충

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10년의 중장기 차원에서 보면 국내총당물량이 감소하는 SINOPEC 관할 지역에서 석유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분간 SINOPEC은 수입인프라인 鎮海, 茂名, 齊魯의 3개 정유공장에 S 1% 이하의 중동원유 처리를 집중시킬 예정이다(그림 4). 그 후는 廣州, 福建 등 연안지역 정유공장의 개조를 계획하고 있다.

SINOPEC이 정부조직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CNPC와도 경영개선 차원에서 일치하고 있는 현재는 수직통합한 양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현장 위주의 전체관리를 지향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실무면에서 지방의 정유공장이나 판매공사가 독자적인 판단을 발휘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석유제품 수입 확대는 그 동향 여하에 달려 있다.

중유나 나프타의 수입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98년에 수입금지된 경유나 휘발유의 수입재개이다. 금수조치는 실제로 '99년 1월에 경유부터 수입이 재개되었다. 중국에서 수입원유 처리와 석유제품 수입중 어느쪽이 확대될지는 특히 SINOPEC이 수요처의 요구에 얼마만큼 공급을 맞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중국의 석유수입

중국이 수입원유 처리에 주력한다고 하면 향후 수요증가가 전망되는 SINOPEC 내륙지역이나 CNPC 관할 四川省에 대한 석유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그림 4). 수입원유를 내륙지역에서 소비지정제하든가, 연안지역에서 중간지정제하든가 해야 한다. 좋은 항구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중국에는 각 정유공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입원유의 중계기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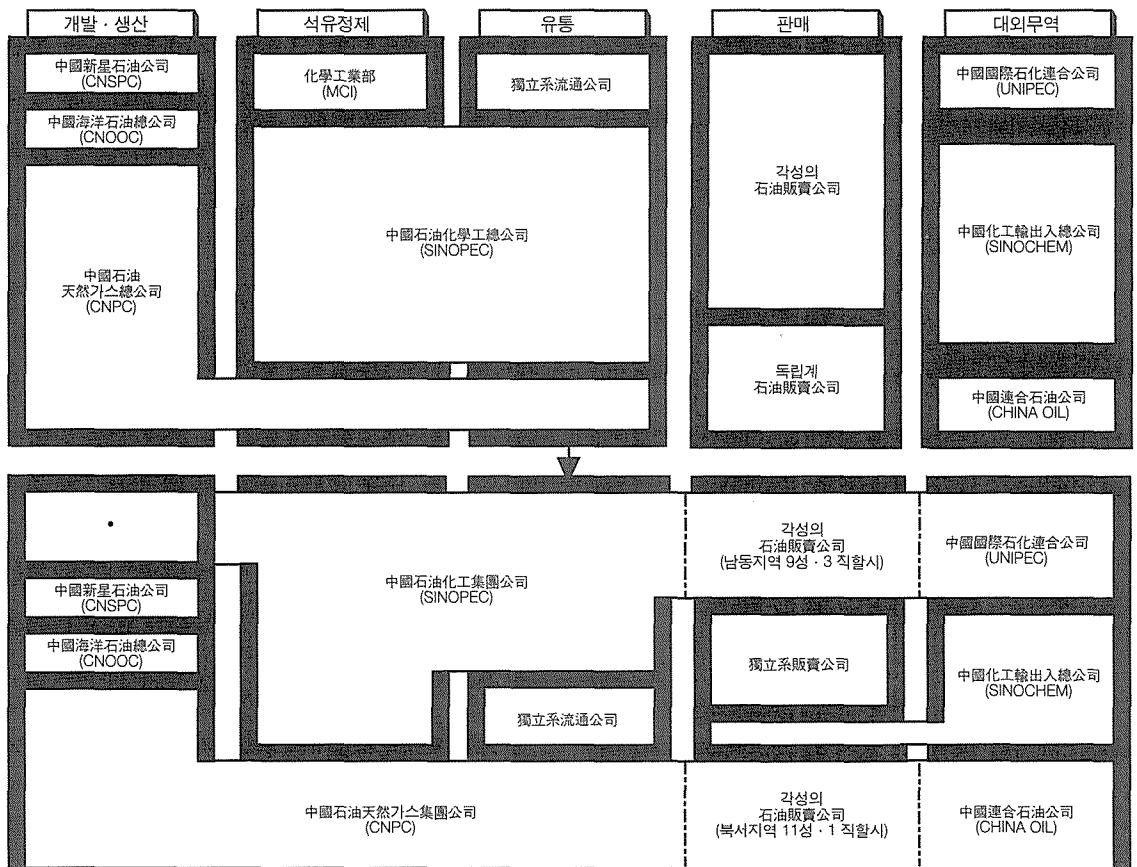
SINOPEC은 S 1%이하 중동원유의 집중처리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경제가 회복되어 다시 석유수요가 확대되면 석유제품이나 경질원유 조달에 한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2005년부터 2010년 석유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유황원유를 포함하는 중동원유 처리시설이 필요한데 그 준비가 향후 중요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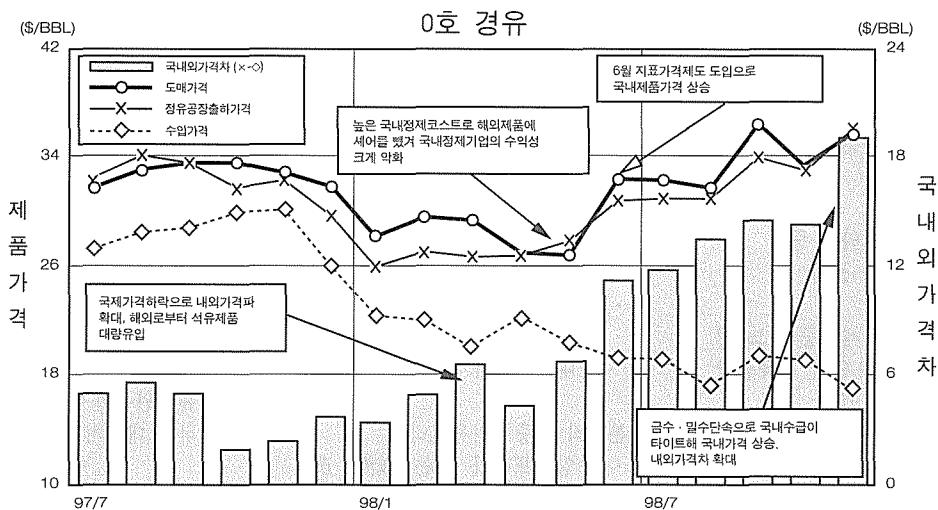
중국은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석유산업의 수직통합을 통해 재편을 단행했지만 SINOPEC, CNPC

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지, 지방의 판매공사나 정유공장등이 독자성을 발휘해서 유연성 있는 전체 관리로 자리잡을 지, 견해가 여러가지이다. 향후 석유수요 급증에 대한 공급방법의 선택도 석유제품의 수입, 국산유사원유나 고품질원유의 수입, 고유황원유를 포함한 중동원유의 본격 수입을 어떻게 조화시켜내는가 중요하다. ☺

<그림1> 1998년 개혁에 의한 부문별 석유산업구조 변화



〈그림 2〉 중국의 국내가격 변동과 국제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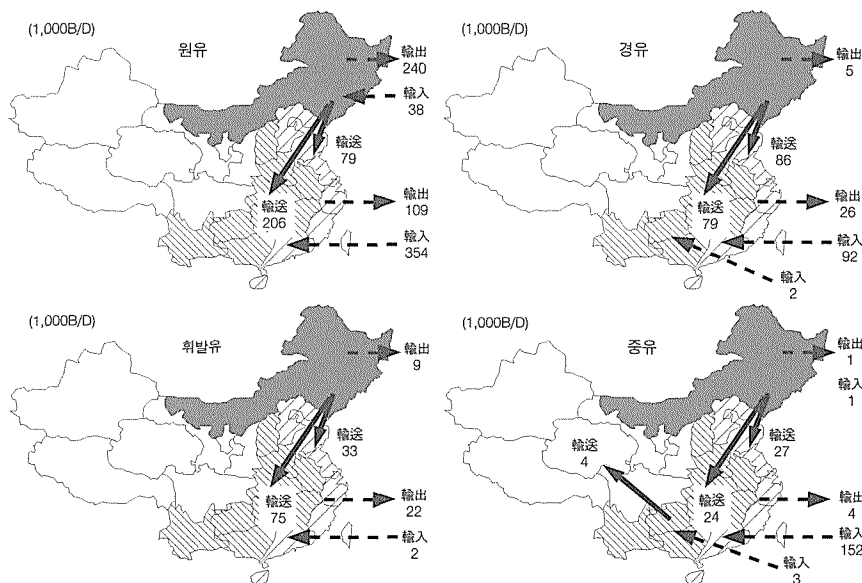


(자료) "China Petroleum Data Monthly", "Platt's China Wire" "Platt's Oilgram Price Report" 각호

(주) 국내도매가격은 廣州市의 실제 도매가격. 정유공장 출하가격은 廣東지역 실제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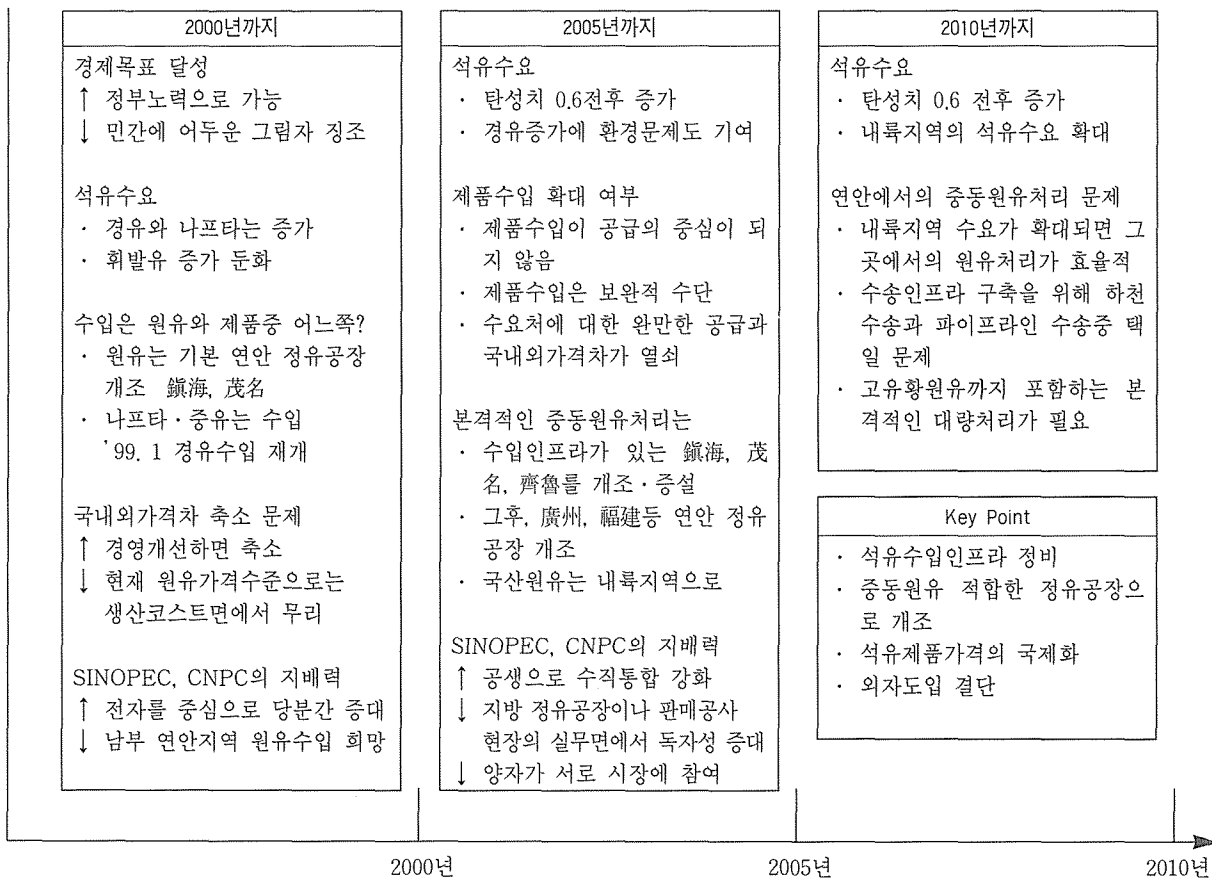
수입가격은 "South China C&F" 수입가격을 사용. 관세, 소비세, 增價稅 상당액을 이룬가격으로 산정.

〈그림 3〉 지역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 국내수송현황(1996년)



(자료) "中國能源統計年鑑 1996 年版", "China Petroleum Data Monthly"

〈그림 4〉 중국의 석유수급 및 석유산업의 방향



(자료) 현지 석유관계자 설명 및 연구분석결과를 기초로 작성

용어해설

내부자 거래

증권거래법 188조 2항은 '회사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미공개 중요정보(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내부자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주주나 임직원, 대리인 등이 내부자에 속한다. 최근에는 회사 내부자는 아니지만 직무나 직위에 의해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기자, 공인회계사, 주거래은행 임직

원, 유가증권 인수회사 직원 등도 준내부자로 분류돼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내부자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보의 누출시기도 단속대상이 된다. 내부자나 준내부자의 경우 신문보도는 24시간, 방송은 12시간이 지난 뒤 주식매매를 하도록 되어 있다.